제 3 강 인식론(계속)

1.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설

1) 세계知에 대한 복원

- 방법적 회의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Cogito ergo Sum이 절대 의심 불가능한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임을 밝혔지만- 일체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의심 가능함을 주장하였으므로 이제 남은 과제 중 하나는 세계에 대한 지식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일이다.

- 신 관념에 의거한 세계知의 복원

(1) 회의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2) 나는 회의한다. 그러므로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3)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완전하다는 관념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한다.

(4) 나는 완전하다는 개념을 알고 있다.

(5) 완전함은 불완전함에서 유래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6) 그러므로 완전함이라는 관념은 나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다.

(7) 완전함은 완전한 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일 수밖에 없다.

(8) 오직 신만이 완전하며, 완전한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9) 따라서 나의 완전함이라는 관념은 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일 수밖에 없다.(신관념의 본유성 주장)

(10) 완전한 존재는 일체의 결핍이 없는 존재이므로 선하고 참된 존재이다.

(11) 선하고 참된 존재가 사악한 악령처럼 인간의 인식을 속일 이유는 없다.

(12)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에 대해 가지는 지식은 착각(illusion)이나 환각(hallucination)이 아닌 한 참된 지식이다.

2) 밀랍의 비유와 경험주의에 대한 공격

(1) 상황: 평상시에는 단단한 밀랍(고체)이 난로 곁과 같이 뜨거운 곳에 있게 되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된다.

(2) 만약 경험주의가 옳다면?

- 단단한 밀랍에 대한 감각경험은 미끌미끌하고, 흰색에 가까운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etc

- 녹은 밀랍은 투명하고 일정한 형태가 없고...etc

- 그러므로 경험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단단한 밀랍과 녹은 밀랍은 같은 사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물이라고 해야만 한다.

(3) 데카르트의 주장

- 우리는 두 밀랍이 같은 밀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같다'는 관념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경험에서 유래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 밀랍과 같은 사물에 있어서 감각경험이 알려주는 '제 성질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동일성(같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에 분명하다. 이것을 우리는 '실체(substance)'라고 부르며, 이 실체에 대한 관념은 innate함에 틀림없다.

⇒ 신, 동일성(실체, 자아 등)에 대한 관념은 생득/본유관념(innate idea)임에 틀림없다.

<경험주의 인식론>

1.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 비판

1)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aletheia)이며,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이다." 『Metaphysica』

2) "플라톤은 친구이다. 그렇지만 진리는 한결 더 친구이다.(amicus Plato, sed magis amica veritas)" 『니코마코스 윤리학』, Ⅰ, 6. 1096a 14-17.

3)범주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존재 범주에 불과하다.

예)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말하면서, 그것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은 실체에 있어서는 신(神)이나 이성, 질에 있어서는 덕, 양에 있어서는 적절함, 관계에 있어서는 유용함, 시간에 있어서는 적절한 때, 장소에 있어서는 적절한 위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범주에 관계하는 우유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을 모든 '현상적 선'의 본질(이데아)로 간주하는 플라톤의 주장은 오류다.

2. J. Locke의 경험주의 인식론

1) Descartes의 본유관념설 비판(부정?)

만약 타고난 관념이 있다면, 어린 아이들도 그 관념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하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아가 어른들도 동일율이나 모순율과 같은 논리적 원리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국가)들도 많다.

2) 백지설(tabula rasa)

인간의 의식은 그 어떤 관념도 없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 오캄의 면도날

- “(술어를) 더 적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게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 예) 하나의 신적 실체 vs 삼위일체설, 천동설 vs 지동설
- 본유관념설이나 백지설 모두 인간인식에 대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본유관념설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본유관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백지설이 더 우월한 인식이론이다.

3) 인식의 기원: 감각(sensation)과 반성(reflection)
- 정신(마음)의 모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감각과 반성으로부터) 유래한다.
* 감각: 신체의 감관을 통해 외적 감각의 경험(외적 경험)
* 반성: 마음이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것(내적 경험)
- 반성은 감각을 전제로 하며, 감각과 반성에서 관념(idea), 즉 지식이 생겨난다.

4) 관념이론(theory of idea)
(1) 관념: “정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것, 사고나 지성이 지각하는 것의 직접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나는 관념이라고 부른다. <u>그러나 우리들의 의식 안에 관념이 생기게 하는 힘은 대상의 질(quality)이라 한다. 이 힘(관념을 생기게 하는 힘)은 대상에 내재해 있다.</u>”(인간지성론 II)
* 로크가 관념론자인지 실재론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2) 단순관념(simple idea)과 복합관념(complex idea)
로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관념을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단순관념(simple idea)
-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위/근본 관념으로 아래의 4종류가 있다고 봄
* 한 가지 관념에 의해서만 의식하게 되는 관념: 시각(색), 청각(소리), 후각(냄새) 등등
* 한 가지 이상의 감각 작용에 바탕하고 있는 관념: 연장, 모양, 운동과 정지(시각+촉각)
* 자기관찰을 바탕으로 한 관념: 사고, 의욕, 기억, 구별, 추리, 판단, 앎, 믿음 등
* 감각과 자기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념: 쾌락, 고통, 힘, 존재, 통일, 계기 등
② 복합관념(complex idea)
- 단순관념의 결합, 대조(비교), 추상 활동을 통해 얻은 관념
예) 인간/군대, 용(페가수스), 큼/작음, 아름다움, 힘, 인격 등등

※ 범주론
로크는 복합관념을 분류하여 양태(mode), 실체(substance), 관계(relation)라는 세 가지 종류의

범주를 발견한다. 이는 전통적인 존재론이 경험주의의 틀 속에서도 계승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분명한 것은 로크는 이들 관념이 대상 존재의 근본원리 또는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것(그래서 먼저 알려져 있는 것=innate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단순관념들로부터 추상하여 얻은 복합관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 양태: 어떤 것에 속하는 성질이나 어떤 것이 존재하는 방식이나 상태를 지칭
- 실체: 스스로 존재하고 있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다른 것을 걸머지고 있는 것(담지하고 있는 것, 성질의 담지자(carrier))
- 관계: 대상들의 실재적인 존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상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이 그 대상에 덧붙여져 있는 것(예: 아버지, 아들, 학생 등등)

※ 보편논쟁: nomialism vs realism
로크는 보편논쟁에 있어서 결국 nomialism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5) 성질론(theory of quality)
(1) 1차 성질: 사물 자체에 속하는 성질
- 굳기(고체성), 연장, 모습(형태), 운동, 정지, 수 등
(2) 2차 성질: 사물에 존재하지는 않고, 일차 성질에 의해 주관 안에서 산출된 성질
- 색, 소리, 맛 등

※ 1차 성질과 대응설 문제
로크는 정신이 1차 성질들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산출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차 성질은 대상에 고유한 성질이다. 그러므로 참된 인식이 '인식(관념)과 그 대상의 일치'라고 보는 대응설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관념과 관념 간의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로크는 이 점에 있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실체론(theory of substance)
(1) 실체: 1차 성질의 담지자(물질실체), 관념의 담지자(정신실체)
- 물질실체에 대한 로크의 말: "이제 정신을 들여다보면, 사실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념도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성질들을 뒷받침해주는 그 무엇이라고 가정(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데카르트 실체론 비판과 로크의 모호함
- 데카르트는 무한실체인 신과 유한실체인 정신/물체를 인정하고 이 실체에 대한 관념은 본류관

념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로크는 실체에 대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체를 가정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이를 일종의 불가지론으로 보통 해석한다. 즉 실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지는 않는다(모른다)고 해석한다.
- 오컴의 면도날을 스스로 위배: 만약 로크가 실체의 존재를 인정하되, 모른다고 하였다면, 알 수 없는 것(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을 불필요하게 상정하는 셈이 되므로 데카르트를 비판하였던 그 원칙이 곧 자신을 비판하는 원칙이 되는 셈이다.

3. J. Berkeley와 D. Hume에 의한 경험주의 인식론의 주관주의화 및 회의론으로의 귀결

1) Berkeley의 로크 비판

(1) 성질론 비판
1차 성질이 불변하는 사물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점을 버클리는 공격하고, 1차 성질로 분류된 성질들도 주관에 의존하는 성질에 불과하다고 주장. 즉 1차 성질, 2차 성질의 구분은 무의미하고 모든 성질은 주관에 의존하는 성질이라고 주장함
예) 1차 성질인 모양: 동전의 모양은 원,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가진다

(2) 물질실체에 대한 비판
- 로크에 따르면, 1차 성질은 사물에 고유한 성질이므로 그 성질을 소유하고 있는 물질실체를 상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버클리에 따르면 1차 성질 역시 주관에 의존하는 성질이므로 물질실체를 상정할 이유가 없게 된다.
- 그러나 버클리는 관념의 담지자로서의 정신실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3) 존재는 지각이다(esse est percipii//Being is Perception)
모든 관념은 성질에서 유래하는 데, 이제 버클리에 따르면 성질들은 모두 주관에 의존해서만 성립 가능하다. 따라서 외부 대상의 존재(물질적 실체)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의 지각활동을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4) 영원한 지각자(eternal perceiver)로서의 神
- 만약 내가 이 '칠판'을 지각하지 않는다면, 이 '칠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 버클리의 지각론은 우리의 상식을 너무 많이 위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는 이 상식을 구제하기 위한 논변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지각자인 신에 의한 보증이다.

- <내가 이 '칠판'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다른 누군가는 보고 있으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신은 항상 지각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칠판'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버클리의 논변이다.
- 버클리가 신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논증 내적으로 보자면, 무한배진의 역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고, 논증 외적으로 보자면 주교였던 그 종교관과 연루되어 있다. 어쨌거나 이 논변은 임시방편적 해결(ad hoc solution)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5) 주관주의/유아론
만약 모든 관념이 감각경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면, 감각경험에서 얻어지는 관념은 각 주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인에게 보편적인 참된 인식은 성립할 수 없다. 즉 오직 한 주관에게만 타당한 인식이 있을 뿐이다. 이 점에 대해 로크의 경우에는 1차 성질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1차 성질에 관한 관념은 보편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고 그래서 로크는 주관주의 또는 유아론으로 빠지지 않는다.

2) Hume에 의한 회의론으로의 귀결

(1) 정신실체까지도 부정
- 흄은 마치 물체가 성질의 다발(집합)에 불과한 것처럼, 정신(실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각의 다발(bundle of perception)'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 정신실체의 부정은 자아 동일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 과연 '나의 정체성(동일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게 만든다.
- 과연 흄은 10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내가 왜 동일한 나라고 생각하는지를 답해야만 한다.
* 이 점에 대한 그의 답은 아마도 기억의 연속성인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밀어부친다면, 모든 것(사물, 사물들의 성질, 나, 나의 기억과 관념, 인상 등등)들은 상호 아무런 연관없는 카오스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이로써 흄은 데카르트를 위시한 이성주의 인식론의 핵심 개념인 본유관념, 즉 신, 물질실체, 정신실체를 모두 반박함으로써 경험주의의 철저성을 보여준다.

(2) 진리의 문제와 인과성(causality) 부정

- 명제의 구분: 분석명제와 종합명제

* 분석명제: 관념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명제, 수학/기하학/논리학의 명제들

* 종합명제: 사실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명제, 자연과학의 명제들

- 관념연합의 법칙과 인과성의 부정

흄은 인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관념들이 서로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 관념들은 계기성, 근접성, 항상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의해 결합한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 계기성이란 우리 감각경험에 의하면 단지 시간적인 선후에 불과한데, 이 시간적 선후가 항상 일어난다고 여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인과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성을 핵심 원리로 하고 있는 자연과학의 명제들은 모두 인간 습관의 소산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 이로써 그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종합명제에 그 어떤 필연성도 없다는 의미에서 회의론을 주장하게 된다. 이 숙제는 I. 칸트에게 넘어간다.